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연설을 마친 후 두손을 번쩍 들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일제히 '보수텃밭' TK 공략

제21대 대통령 선거 D-20

李 “영·호남, 박정희·DJ 정책 무슨 상관”
金 “朴 위대한 지도자” 지지층 결집 호소
이준석, 경북대서 점심 ‘젊음·소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보수 표심을 공략했다.

두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 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보였다는 점을 다시금 각인시켜며 영남 표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영·이념에서 벗어난 실용 기조와 지역주의 탈피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에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여러 일 중에 훌륭한 것은 베끼기로 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전날 출정식에서 선보인 ‘통합 운

동화’를 신고 현장 유세를 뛰며 국민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운동화는 국민 통합의 의미로 민주당 색인 파란색 바탕에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이 써온 빨간색이 가미됐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대구, 포항,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산업 발전과 공급망 재편 전략 등을 모색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해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다”며 “젊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묘소에 짐을 뺄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칩니다’라고 참회했다”며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

자”라며 “가난을 앓었고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가졌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 직장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 지사 “진짜 대한민국 위해 대선 투표 적극 참여”

김영록(사진) 전라남도지사가 “국민이 가고자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고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적 혼란과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도 다시 회복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손발을 잘 맞춰 도민의 대선 투표 참여 호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이



로 국고확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역 성장 기반이 될 정부 공모사업 다수 선정과 관련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많은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더 능가하도록 모든 공모 참여 사업을 총괄 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4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 이행 실적(지난해 12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광주광역시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부문에서 합격(Pass)

)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제주 등 9곳이다.

광주광역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특히 △광주다움 돌봄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 조성 등 주요 공약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해왔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5·18기념주간 특별 교통대책 시행

17~18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
18일 ‘518번 버스’ 30회 증차
15~18일·24일 금남로 차량 통제

광주광역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와 5·18민주광장 등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5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시내버스·도시철도,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5·18민주화운동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편리하게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용객 통계를 위한 승·하차 태고는 필수이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마을버스 가운데는 ‘5·18 무료운행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친 서구 760번이 18일 당일 무료로 운행한다.

기념식 당일인 18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경유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30회 증회 운행, 행사 참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전야제와 본행사가 열

리는 동구 금남로 일대 도로는 일정에 따라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전면 통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4일 5일간이다. 이 기간에는 금남로 경유 시내버스 최대 27개 노선이 우회 운행된다.

24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는 5·18마라톤대회가 열림에 따라 518번 버스는 오전 중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원에 시와 자치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5·18 당사자 구술채록사업 추진

교육·기념공간 콘텐츠 활용

전라남도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역 5·18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5·18 관련 구술채록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연구기관인 5·18기념재

단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1980년 5월 당시 전남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기존 구술기록 자료 조사·분석 등 전남 5·18 관련 사전 연구를 진행한 뒤 항쟁 참여도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민주화운동 당사자, 목격자, 가족 등 50여

명을 선정해 구술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구술채록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 등을 일반인과 학생 대상 역사교육자료와 향후 건립될 5·18 기념공간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구술채록을 마친 뒤, 2027년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과 검증 등을 거쳐 구술기록집을 출판하고 이를 알리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30대 보급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3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들에게는 고가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

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총 327대를 보급했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보조한다.

신청 기간은 6월23일까지로, 원하는 사람은 서류를 갖춰 시군 정보화부서에 우편·방문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